

2020학년도 숭실대학교 신입학 수시  
**논술고사 문제지(2교시: 인문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연필·볼펜·사인펜 등)를 사용해야 하며, 검은색 외의 다른 유색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답안을 수정하려면 연필의 경우 지우개로 지우고 작성하며, 기타 검은색 필기구의 경우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줄 위에 작성해야 합니다.(수정액 지참 및 사용 금지)
- ③ 답안의 작성은 우리말 문법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릅니다. 답안의 분량은 각 문제에서 정한 글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점됩니다.
- ④ 각 문제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란에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문제의 답안이 해당 답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답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 ⑤ 제시된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지 말고, 답안의 내용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제목이나 번호를 달지 마시오.
- ⑥ 제시문의 일부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 따옴표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며, 직접 인용의 경우 외에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오.
- ⑦ 답안지에 문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표지(標識)나 본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경우 답안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대조하고, 이를 토대로 <보기>의 밑줄 친 물음에 대한 두 입장의 답변을 각각 서술하시오.(700±70자)

**문제 2** 위의 두 입장 중 하나와 제시문 【마】를 근거로, 제시문 【바】의 실험 참가자들이 돈을 포기한 이유와 실험이 시사하는 바를 정의(justice)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술하시오.(800±80자)

<보기>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두 노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내 어머니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이다. 두 사람을 다 보살핀다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기 어머니를 돌볼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경우 합의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는 부모를 선택한 적도, 부모를 갖기로 선택한 적도 없으니까. 내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도덕적 책임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제공한 혜택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를 갚겠다고 합의한 셈이라는 것이다. 합의와 상호 이익을 따지는 이 계산이 가족의 의무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 부모를 둔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해야 할까? 부모 노릇을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그 부모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면, 그때의 도덕적 책임은 상호 이익과 합의의 윤리를 넘어서게 된다.

<뒷면에 계속>

### 제시문 【가】

우리 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나 공직자는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인(公人)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하늘의 추첨 제도로 부여된 선천적인 재능이나 땅의 추첨 제도로 부여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의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신의 지위를 성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는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하여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 지도층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의 공동선을 위하여 그들의 자연적 자질을 이용하고, 사회적 여건을 활용하라고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자연적 능력의 배분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우리 자신에게 배당된 재능에 대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그것의 경영자나 관리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기술과 지식 역시 여러 대에 걸쳐 누적되어 온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대인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공동 노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기술과 지식도 사회로부터 개인이 빌려 온 공유 자산이므로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에 대한 상환 의무도 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의감, 즉 공개념적 사고에 기인한다.

### 제시문 【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러나 가끔씩 지각을 하는 부모들 때문에 보육 교사들은 퇴근도 못 하고 아이들을 달래며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부모들에게 어떤 유인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몇 군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처음에는 10분 이상 지각을 하는 부모들에게 3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벌금 제도가 시작되자 놀랍게도 부모들의 지각은 전보다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게다가 늦게 오는 부모들이 이제는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으며 계산하듯 3달러를 건네 주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어떤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에 대한 고려보다 개인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동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예는 인간이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 제시문 【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에서 인간은 독립적인 인격을 갖춘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처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 의식을 연대 의식이라고 한다. 연대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정신이다.

연대 의식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요구된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배려와 공감이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의식하고 존중하는 능력이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 가치관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의 가치와 권리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

### 제시문 【라】

한 사회의 연간 수입은 그 사회의 연간 노동 총생산물의 교환 가치와 정확히 같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자본가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만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한다.

<다음 면에 계속>

## 제시문 【마】

롤스 정의론의 기본적 특징은 자유, 평등, 그리고 복지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을 독창적으로 조정한 정의의 두 원칙과 이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이라 불리는 가상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당사자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전원 합의를 통해 선택하게 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 원칙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에도 유의해서 읽어야 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철학적 진리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가상적인 사회적 합의에서 도출하며, 이러한 합의가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의 산물인 정의의 원칙 역시 공정하다고 보았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르지 않은 피자를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적게 먹을 생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가장 정의로운 분배는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맨 마지막 조각을 먹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큰 조각을 먹고 싶어 크게 잘라 놓으면, 그 큰 조각이 자신에게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균등하게 자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지만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이다.

## 제시문 【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자는 최소 비용을 들여 효용과 만족을 극대화하고 기업인은 최소 생산비로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한다. 경제인(호모 에코노미쿠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합리적으로만 행동한다. 그러나 인간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인간의 행동은 수많은 동기와 복잡한 내면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이기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게임과 실험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험이 '최후통첩 실험'이다. 실험자는 실험 대상으로 나선 민수와 영희 둘 중의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 만약 민수에게 돈을 주었다면 민수가 그 돈을 영희와 얼마씩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제안을 영희에게 제시하게 한다. 민수의 제안을 영희가 받아들이면 공동 10,000원은 서로 나눠가져도 좋지만 만약 영희가 이를 거부한다면 돈은 다시 몰수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영희는 민수의 제안을 거부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단돈 100원이라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제안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게임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평균적으로 제안자와 상대방의 배분 몫이 7 대 3이 되지 않을 경우에 30퍼센트 미만의 몫을 제안 받은 상대방은 아예 그 돈을 포기했다.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최후통첩 실험은 이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최초의 실험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끝>